

위대한 당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려 있는 세계컬지의 청춘과원에 펼쳐진 희한한 과일대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산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서 마련해준 튼튼기계와 지게차 등을 보아주시면서 농장에 동력분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과수기계를 더 보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이 올해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더 높이 비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과수의 기지를 들고나가는 데서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를 원천히 해결할데 대한 문제, 애 분장들마다에 과학

기술보급실을 꾸려놓으며 과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할수 있도록 돼지독장들을 더 건설할데 대한 문제, 방울식관수제계를 완비하며 중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문제를 풀데 대한 문제, 현대적인 과일가공공장을 일떠세울데 대한 문제 등 농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고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가시가 휘도록 주렁주렁 열린 사과들과 하늘밖에 차별치는 과일향기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

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한그루, 한그루의 과일나무마다에 자기들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농장 종업원들의 당에 대한 충정심, 불타는 애국심이 낚은 귀중한 결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공급하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고산과수가 생겨 처음 보는 과일대풍을 이룩하였다고, 이 농장은 당정책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전형 단위, 모범단위이라고 하시면서

달중양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검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 이룩된 과일대풍소식이 전례치 못한 입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북부피해 복구전선에서 전화위부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뚱하도록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농장을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 세상에 내놓고 자랑

할만한 과수농장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며 과일생산에서 해마다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간다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사회주의무풍도원으로 전변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집단적혁신을 일으켜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 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위문전문을 보내어왔다

별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부지역에서 2016년 9월초 여러달동안 내린 무더기비와 폭풍으로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났으며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외부와의 련계가 두절되어 인민들의 생명재산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쓴 슬픔속에 접하였습니다.
나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사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조선로동당 정부와 인민 그리고 이번 자연재해로 불행을 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문의 뜻을 표시합니다.
나는 당신의 명도가 있고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노력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이 서로 돕고 위하는 전통을 높이 발휘하여 조성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빠른 시일내에 안정시키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위라 쩌

2016년 9월 15일 비엔리안

《조선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로 전환》, 《조선로동당 전화위부의 기적창조를 호소》, 《전국이 피해복구사업에 펼쳐나서는것으로 화답》

각국의 출판보도들 광범히 보도

세계의 이목이 전화위부의 기적이 창조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으로 집중되고있다. 온 행성을 휘젓는 인민중시,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중대조치가 취해지고 현이 모든 힘을 북부피해복구사업으로 부른 우리 당의 호소따라 전제 군대와 인민이 한결같이 펼쳐나선데 대해 10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각국의 출판보도물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러시아의 파르스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이 나라의 북면 피해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 인적, 물적, 기술적장비력을 총동원, 총집중하고있다. 완공을 눈앞에 둔 리명거미건설까지도 중지하여 여기에 집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지난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라선성에 큰 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조선은 한말이라는 짧은 기간에 보다 훌륭한 지역으로 일신시켰다.

인디아의 ND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의 북부지역에서 최악의 폭우로 인한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해 전제 인민이 일떠나섰다. 조선로동당의 전투목표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함북도인민들에게 따뜻한 보급품을 마련해주고 재해지역을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천지개벽시키는 것이다. 이에 호응하여 200일전투의 주요전역들에 전개되었던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피해지역으로 긴급 파견되고 각종 공중이 큰물피해복구전투에 적극 헌신해나서고있다.

철도를 비롯한 운수부문에에서는 건설자재, 설비들과 함께 급급되는 건설부대들을 긴급수송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이 나라의 인디아-아시아통신, 지 뉴스TV방송을 비롯한 언론들도 우리의 피해복구전투 소식을 특별프로로 전하였다. 중국의 환구망과 신화통신, 라오스신문 《비엔리안 타임스》, 만마통신, 나이지리아의 AIT방송, 미국의 AP통신, 프랑스의 AFP통신과 도이칠란트산세언단 인터넷뉴스도 《조선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로 전환》, 《조선로동당 전화위부의 기적창조를 호소》, 《전국이 피해복구사업에 펼쳐나서는것으로 화답》 등의 제목으로 위대한당의 호소따라 군민협동작전으로 피해복구전투에 한결같이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평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